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1. 5.(수)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해양보전과	담당 자	• 과장 신재영, 사무관 김기남, 주무관 권성욱 • ☎ (044) 200-5307, 5847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담당 자	• 과장 정래홍, 연구관 오현주, 연구사 윤석현 • ☎ (051) 720-2220, 2233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전남 신안 갯생이모자반 유입 대책반 신속 가동

- 예찰 및 사전 해상수거 강화, 피해최소화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갯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자은면 해역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1월 5일(수)부터 갯생이모자반 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양관측위성(천리안2호, 랜셋8호)을 통해 서해 먼 바다에서 출현하는 갯생이모자반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1월 3일(화) 서해 남부 먼 바다에 소규모의 부유성 갯생이 모자반이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월 3일(화) 전남 신안 자은면 등 6개면에 부유성 갯생이모자반 약 85톤(전남도 집계)이 실제로 유입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정책 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는 등 갯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해양관측위성으로 동중국해 및 서해 공해상, 제주도과 전남 연근해역을 모니터링하고,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해경항공단, 수산과학조사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찰·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필요할 경우 해상수거선단*과 갯생이모자반 수거용 장치를 즉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 (국가운영, 25척) 해경 방제정(10척), 해양환경공단 청항선(9척), 어촌어항공단 어항관리선(6척)
(지방운영, 80척) 전남도, 제주도 보유 자체 정화선 및 민간정화선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양식장 등에서는 괭생이모자반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시·군의 대책반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이나 해로드 앱에서 제공하는 괭생이모자반 예찰 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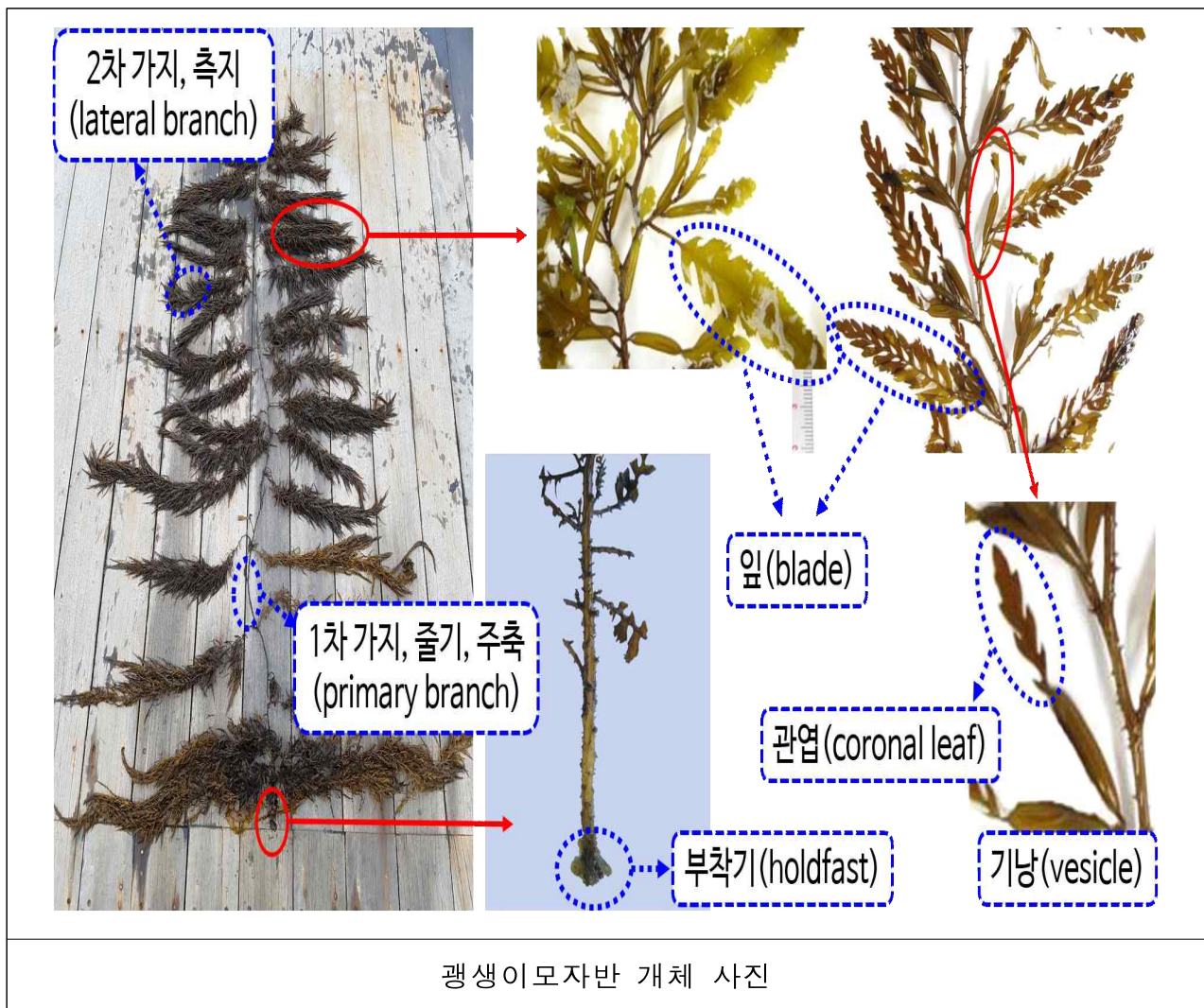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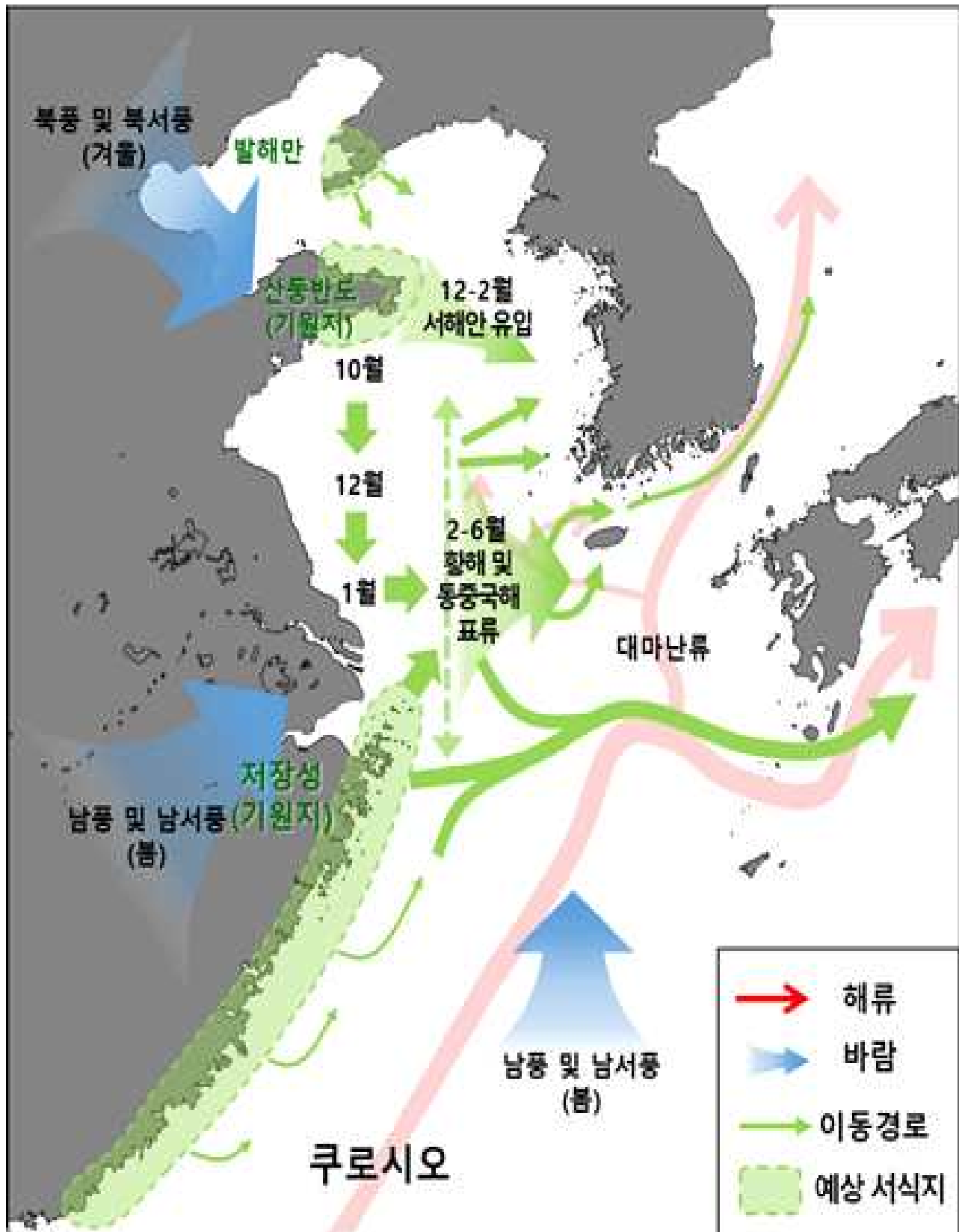
괭생이모자반 특징

□ 특징

- 괭생이모자반은 갈조류로 암반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들이 해상을 떠다니며 부유생활을 하는 해조류
- 대규모로 떠 형태로 해상에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주고, 양식장 시설물에 달라붙어 시설 훼손 및 양식생물 유실 등의 피해 유발



□ 부유성 갯생이모자반 주요 이동 경로





신안군 비금면(원평항, 명사십리 해변)



신안군 자은면(양산해변)



신안군 암자면(대광해수욕장, 대머리, 도찬리 해변)